

본당소식

공지사항

■ 먼훗날 우리는

6월 21일 미사 중에 송별 인사가 있습니다.

■ 여름방학 미사 안내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도구 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오도구 캠프

| | |
|----|-----------------------------|
| 일시 | 7월 10일(금)~7월 12일(일) / 2박 3일 |
| 장소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 오도구 성당 블로그 제작

오도구 성당 홍보를 위해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세요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6월 14일)

| | |
|------|--------|
| 봉헌금 | 680 위안 |
| 미사예물 | 200 위안 |

※ 봉헌금은 현금이나 봉헌봉투 안쪽의 QR 코드로 부탁드립니다



124위 복자

복자 한덕운 토마스
(1752~1802)



충청도 홍주 출신의 한덕운 토마스는 1790년 윤지충 바오로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이듬해 스승이 신해박해로 순교했음에도 그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00년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기도 광주 의일리(현 의왕시)로 이주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교회와 교우들의 소식을 알고자 옹기장수로 변장해 한양으로 향했는데, 청파동에 이르렀을 때 거적으로 덮인 흥낙민 루카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비통하게 애도했다.

또한 서소문 밖에서는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이는 박해 상황에서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포졸들에게 체포된 그는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고, 동료들을 밀고하지도 않았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남한산성으로 옮겨져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 50세의 나이에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그는 사형 선고 전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로 굳은 신앙을 증거했다.

“저는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며 가장 올바른 도리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비록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어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천주교 오도구 권보



오도구본당 QR 코드

발행 천주교 북경오도구 | 본 당 北京海淀区后八家 248 号神哲学院 | 주임신부 강주석 베드로
 편집 김민규 대건안드레아 | 홈페이지 cafe.daum.net/wudaokouch | 정년회장 권오기 베드로

연중 제 12 주일



⊕ 오늘의 전례

| 제 1 독시 예레 20,10-13 | 제 2 독시 로마 5,12-15 | 복음 마태 10,26-33 |
|--|----------------------|-------------------|
| <p>【회답송】 시편 69(68),8-10,14 외 17.33-35(☉ 14 ㄷ 참조)</p> | | |
| <p>◎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p> <p>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 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p> | | |
| <p>【복음 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p> | | |
| <p>◎ 알렐루야</p> <p>○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p> | | |
| <p>【영성제송】 시편 145(144),15 참조</p> | | |
| <p>◎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p> | | |

| 사랑하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래전에는 이 대화를 보면서,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니다. 글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쉬워 보였고 양들을 돌보라는 것은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양들을 돌보라고 일을 시키시는(!) 것은 좀 무리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라고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종종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식사 시간인지 취침 시간인지도 헷갈리시는 95 세 수녀님이 계십니다. 돈을 가위로 잘라 놓기도 하고, 미사 시간에 성무일도를 펼쳐 놓고는 영성체하시라고 해도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녀님들을 사랑해요. 내가 자꾸 잘못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도 못하지만, 내가 수녀님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요한 21,16)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한 복음 18 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제의 종의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사제에게 신문을 받으실때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잡아떼었습니다. 20 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21 장에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도,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생각하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라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보다 베드로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 양들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복음이 끝나지만, 요한 복음에서 한 구절은 다시 인용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저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쉽게 읽기」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 「구약의 역사실화」 등.

『2026 의정부교구 사목교서』

『미사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선교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를 향하여』